

글로벌 첨단산업 중심, 충청이 초격차를 선도합니다

- 삼성, SK하이닉스, 셀트리온 등 충청권에 약 392조원 투자 -
- 산업부, 「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」 발표 -
- 세계 최초 투자한 8.6세대 OLED 양산 투입 현장에서 보고회 진행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7월 2일(목)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삼성, SK하이닉스, 셀트리온 등 충청권 투자 주요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, ‘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’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 특히, 이날 보고회는 세계 최초 투자한 8.6세대 OLED 양산을 위한 첫 유리기판이 투입되는 날, 기업 현장에서 개최되어 의미가 매우 크다.

이번 행사는 6월 29일(월) ‘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’와 6월 30일(화) ‘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’에 이어서 개최되었으며, ▲삼성, SK하이닉스, 셀트리온 등 3개사의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계획 발표, ▲정부의 ‘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전략’ 발표, ▲중앙정부-지방정부-3개사 간 투자협약식(MoU) 순으로 진행되었다.

<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7.2(목) 오전 10:00~10:40 /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
- 참석자 : 중앙정부, 지방정부, 산업계, 지역 유관기관 등 200여명
 - 중앙정부 : 산업통상부, 재정경제부, 교육부, 기획예산처
 - 지방정부 : 충청남도, 충청북도, 세종특별자치시, 대전광역시
 - 산업계 : 삼성, SK하이닉스, 셀트리온 등
 - 지역 유관기관 : 충남북부 상공회의소,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
- 행사 주요내용 : ①기업의 충청권 투자 계획 발표(삼성, SK하이닉스, 셀트리온), ②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(산업부), ③투자협약식

< 주요 기업의 충청권 투자 계획 주요 내용 >

먼저, 삼성은 충청권에 ▲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(삼성디스플레이), ▲HBM 팹 및 패키징(삼성전자), ▲AI 서버용 고성능 패키지 기판(삼성전기), ▲최첨단 배터리 신공법 마더라인(삼성SDI) 등에 약 14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.

또한, ▲SK하이닉스는 낸드 및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원, ▲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. ▲그 외 기업들도 AI데이터센터에 약 150조원(충청+α)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여 충청권에 약 392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.

<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 주요 내용 >

정부는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/부품, 바이오 등 4대 성장엔진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「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」을 발표했다.

첫째, ‘더욱 강력한’ 투자 인센티브로 대규모 지방투자를 촉진한다. 재정, 금융, 규제, 기술, 세제, 인력, 인프라 등 7개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묶은 투자 지원 부스터(Booster) 프로그램을 지원한다. 특히, 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수의 복합규제를 큰 폭으로 풀어주는 메가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.

< 7대 정책지원 패키지 주요 내용(안) >

- ◆ (재정 **B**udget)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
- ◆ (금융 **O**ptimized Financing) 국민성장펀드, 지역성장펀드 등 대규모 투자자금 제공
- ◆ (규제 **O**pen Zone) 메가특구 지정을 통한 최고 수준 규제 특례 부여 등
- ◆ (기술 **S**trategic R&D) 앵커기업 중심 대형 R&D 프로젝트
- ◆ (세제 **T**ax Incentives) 기업 및 근로자 지방우대 세제 지원
- ◆ (인력 **E**xpert Workforce)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육성 등
- ◆ (인프라 **R**egional Infrastructure)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

둘째, ‘더욱 튼튼한’ 지역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투자기업 중심 산학연 혁신을 활성화하겠습니다. 우선 **디스플레이 분야**는 ▲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과 ▲차세대 디스플레이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R&D에서 실증, 양산으로 이어지는 혁신 활동 전주기를 지원한다. **반도체 분야**는 ▲첨단 패키징 R&D 집중 지원, ▲반도체 가스 성능·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. **이차전지/부품 분야**는 ▲빅데이터 기반 공정고도화 실증센터, ▲EV용 배터리 화재 안전성 평가센터를 조성한다. 이와 함께, **바이오 분야**는 ▲공공바이오 파운드리, ▲AI 접목 공공 위탁 생산시설을 구축한다.

셋째, ‘더욱 신속한’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는 기업 투자를 실행한다. 중앙정부, 지방정부, 민간 투자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지원전담 조직인 ‘**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**’, 이른바 ‘**충전대 TF**’를 즉시 가동해 100일 이내에 「**충청권 투자 종합지원계획**」을 마련하고, 기업의 입지, 인허가, 전력, 용수, 인력, 금융 애로 등을 한 곳에 접수하여 빠르게 해소할 예정이다.

< 투자협약식 주요 내용 >

오늘 행사에서는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(삼성, SK하이닉스, 셀트리온)과 중앙정부(산업부, 재경부, 교육부, 기획처) 및 지방정부(충청남도, 충청북도, 세종특별자치시, 대전광역시)간 ‘**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협약식**’도 진행되었다.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충청권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**대규모 투자를 적극 이행**할 계획이며, 정부는 충청권 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**각 기관별 역할***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- * (산업부)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투자 이행 지원 등
- (재경부) 충청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정책 조정 지원
- (교육부) 충청권 첨단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등
- (기획처) 충청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
- (충청남도, 충청북도, 세종특별자치시, 대전광역시) 법령·조례에 의한 인허가와 보조금 지급,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등

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“충청권은 사람, 기술, 산업이 모이는 사통팔달의 대명사로서, 충청권 첨단산업의 성장이 곧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로 이어질 것”이라고 언급하면서, “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합심하여 오늘 발표된 투자 계획이 ‘대체불가 대한민국’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재석 (044-203-4410)
		담당자	사무관	유상원 (044-203-4411)
			주무관	노영진 (044-203-4418)
	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	책임자	과 장	위승복 (044-203-4420)
		담당자	서기관	홍기웅 (044-203-4422)
			사무관	김동영 (044-203-4405)
주무관			강승현 (044-203-4426)	

